

2013. 10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3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10.29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박희원, 송인덕, 김형주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6	-	2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6	8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 건	9월
교양	'아침이 좋다' 다문화가정 인터뷰시 표현 유의	'아침이 좋다' MC 및 리포터 인터뷰시 상대방 배려, 표현 유의	9월
기타	창사 특집다큐 "노벨과학상" 홈페이지 게시 바람	창사 특집다큐 "노벨과학상" 홈페이지 게시	9월
기타	'시사광장' 보도 토론프로그램 모바일에 게시 바람.	'시사광장' 보도 토론프로그램 모바일에 게시.	9월
교양	'아침이 좋다'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 의상 계절에 맞게 착용할 필요	'아침이 좋다'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 의상 계절에 맞게 착용	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허참의 토크&조이(10월 13일) 「유기농의 즐거운 혁명! 이태근 대표」 편이 방송되었다.</p> <p>이제 농업분야도 생산량에 치우치지 보다는 높은 품질과 특성화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번 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일생을 유기농 농업을 위해 노력해온 이태근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유기농 농업과 도시와 농촌의 협력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p> <p>본 편에서는 건강한 흙, 유기농 농업에 대한 용어의 개념에서부터 논농사, 가축을 기르는 분야 등 각 분야별 유기농화 방향을 설명해 주어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순환농법에 대한 연구는 참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다양한 사진과, 다이어그램, 벼 종류별 샘플과 같은 시각자료를 통해 자신의 삶과 연구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줌으로써 시청자들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진행자들의 간결한 진행과 적절한 질문과 반응은 방송을 더욱 매끄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오덕성).</p>	<p>좋은 평가에 감사하다. 프로그램이 1년이 되면서 진행자의 호흡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유익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p>	<p>편성 수용</p>
교양	<p>10월 11일 시사 플러스는 ‘수덕사에 무슨 일이?’와 ‘아파트 관리비가 새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방송하였다. ‘수덕사에 무슨 일이?’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수덕사 주변(덕송산)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서 국내의 고사찰의 문화재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수덕사 관계자와 지역주민, 예산군, 전파기지국 등의 3자의 입장을 모두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찾으려는 구성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문제제기만이 아닌 문제를 상호공유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말미에 진행자가 당사자들의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형태가 좋</p>	<p>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이미지 구성이 되도록 강구하겠다. ‘시사플러스’는 만 5년이 지나면서 체계가 갖춰진 것 같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청자한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정진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아 보였다. 다만, 이전에 구성했던대로 조금 더 이미지 등의 효과를 통해 실제 대응전에서 보이는 철탑의 높이와 덕숭산에서 경관을 보면서 느껴지는 철탑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방송이었다(오덕성).</p>		
교양	<p>10월 26일 건강플러스에서는 간 기능강화와 대동맥류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방송을 하였다. 우선 간 기능강화에서는 효능이 좋은 몇 가지 식품을 소개해주고 그 식품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다. 요리법의 경우 요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소개해 주어 시청자들이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주요 정보를 제공해주어 시청자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대동맥류 질환에 대한 방송이 시작될 때는 경각심을 보여 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동맥류의 전문의를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 대동맥류에 대한 설명을 들려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수술과 약물치료, 예방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자료화면과 쉬운 비교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동맥류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구성 패턴이 전과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점이다.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매번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소재에 맞게 스튜디오에서의 변화(건강제조 등)를 찾아보았으면 한다(오덕성).</p>	<p>‘건강플러스’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맛있는 처방전>은 생활에서 요리로 통한 건강법을 담고 있고, <TV주치의>코너는 전문의를 모셔서 병에 대한 상세한 의학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언급하신 스튜디오에서의 변화모색을 준비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13일 시사광장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해 토론하였다. 패널 선정도, 토론 내용도 적절했다. 대전도시철도 문제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무척 관심을 갖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핫 이슈를 다루는 의제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대를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라임타임대를 확보하여 이 시간대에 방송을 했으면 한다.</p>	<p>주요 쟁점,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시간대 변경은 전체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고려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원론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 인구를 2018년 180만명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과연 인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가되고 대전시 교통이 또한 그렇게 심각한가? 일부에서는 대중교통의 버스 노선을 확충하여 지하철 대신 활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다. 프라임타임대에 이 사안을 다시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 주었으면 한다(장동환).</p>		
교양	<p>10월 26일 '건강플러스'를 병원에서 시청하였다. 느낌이 집에서 시청하는 것과 달랐다. 프로그램 각 코너가 눈에 잘 들어왔다. 이 날 다루는 소재가 대동맥과 관련된 질환이었는데 MC의 멘트가 정돈 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몸속의 시한폭탄 대동맥... 등 혹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시청자들이 보았다면 공포심을 가질 수 있을 법 하다. MC의 언어 선택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유덕순)</p>	<p>MC의 언어선택에 유의하겠다. MC의 병에 관한 멘트는 작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순화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p>	<p>편성 수용</p>
교양	<p>대전MBC가 내년이면 창사 50주년이 된다. 창사 50주년에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과학기술>,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도청 내포 신도시> 등이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다. 창사 50주년 관련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김명수).</p>	<p>현재 결정된 창사 50주년 기획물은 충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6부작 '실록 충청'이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소재 역시 적극 발굴해 대전, 충남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위원께서 제시한 '과학 기술', '지역 사회 발전' 등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MBC는 50년의 연륜에 걸맞는 스케일 있는 기획물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와 역사, 그리고 미래와 발전을 아우를 수 있는 충실한 기획으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기타	<p>보도국 특집 다큐멘터리 '노벨과학상 112년 도전' 잘 보았다. 1, 2부가 장기적으로 해외 취재를 결들여 잘 만든 프로그램으로 좋았다. 과학자인 입장인 본 위원에게 과학 관</p>	<p>특집 다큐멘터리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다시보기>를 추가 설정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p>	<p>경영 (전산)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런 다큐멘터리는 흥미 있게 와 닿았다. 욕심을 내자면 우수한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집 다큐물을 다루는 모바일 섹션도 필요하다고 본다(김명수).		
보도	10월 9일은 한글날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방송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끔 뉴스 자막을 보면 오, 탈자가 눈에 띈다. 유의해 주기 바란다(김경숙).	뉴스 편집과정에서 오, 탈자, 맞춤법 등에 더 신경쓰겠다.	보도 수용
보도	시사광장에서 모처럼 정치 관련 주제의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0월 6일 '국회위원 선거구 조정', 10월 20일 '미리 가 본 6.4 지방선거'를 시청하였다. 주제를 잘 잡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년 선거에 대전MBC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좋은 방송을 기획, 제작해주길 바란다. 시사광장 패널을 보면 대개 출연했던 분들이 다시 출연한다. 지역에서도 정치평론가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종편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다양하게 출연하여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좀 더 다양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정치평론가들이 배출되어 토론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려 나갔으면 한다. 대전MBC가 패널들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김경숙).	다양한 패널 확보에 주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보도의 아침 날씨 지도가 멋있다. 평면적으로 제작하지 말고 입체적인 CG로 제작하길 바란다(김영광).	담당자가 입체적인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여 입체적인 지도로 방송 나가고 있다.	보도 수용
기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케이블을 신청하지 않고 지상파만 시청하고 있다. KBS와 SBS는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MBC는 시청할 수가 없다.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장동환).	아파트는 공청시설을 이용하여 각 세대에 유선으로 신호를 전달하며 MBC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먼저 리모콘을 이용, 채널 자동 재설정을 해야 하며,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 아파트 시설팀에 의뢰,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술 의견참고
교양	특집 프로그램으로 공들여 만든 다큐멘터리	연 2~3회 제작, 방송하고 있는	편성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를 꼽을 수 있다. 예고 PR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특집 프로그램 예고가 없다. 홈페이지에도 특집 프로그램 예고란을 만들어 홍보해 주길 바란다(김명수).</p>	<p>대전MBC 특집 다큐멘터리의 예고PR은 현재 ON-AIR에서만 송출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홈페이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	<p>수용</p>
<p>보도</p>	<p>‘노벨상 도전’ 같은 우수한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KAIST나 과학고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떤가?(김영광)</p>	<p>다양한 부문에 시청각자료로 제공할 계획이 있다.</p>	<p>보도 의견참고</p>
<p>보도</p>	<p>시사광장에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가 10월 27일 방송되었다. 충남도지사 심대평, 이완구, 안희정 지사로 오면서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 23년이 되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내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단 1회물로 정리하기는 복잡하다. 이해관계자도 많이 얽혀 있다.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제작하여 방송해 주길 바란다(한찬희).</p>	<p>‘시사광장’뿐만 아니라 기획보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계속 주시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